

# 현대 건축에 나타나는 색채의 다중적 의미

## Multiple Meaning of Color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최왕돈\* / Choi, Wang-Don

양선아\*\* / Yang, Sun-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ultiple meaning of color variously expressed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Nowadays heterogeneity, plurality and ephemerality of modern society have been well presented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phenomenal characteristic of color is so appropriate to express the unfixed and immaterialized attribute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at it can make color a major element of architecture, which, in the past, used to be a minor element for the lack of materiality. Through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important building projects in terms of color,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rchitectural application of color shows multiple meanings as follows; phenomenal expression, visualization of complex programs and embodiment of design process, reflection of context and control of users' mentality. At the same time, these multiple meanings are complexly presented in a single building project.

키워드 : 색채, 현대건축, 비물질성, 의미, 다중성

Keywords : Color, Contemporary architecture, Immateriality, Meaning, Multiplicit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이후 건축에서 색채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건축이 예술, 문학, 과학 등 다양한 장르와 통합되면서 단순한 장식, 혹은 부차적인 요소라는 기존의 색채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색채가 독자적인 표현 영역이자 의미 있는 개념 생성의 도구라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색채의 표현과 기법 역시 한층 다양해져 IT, 미디어, 조명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형태로써 대상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차원을 초월하여 대상이 갖고 있던 고유의 형태와 공간의 틀을 유동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었다. 색면(色面)은 단순한 형태 구축 수단을 넘어 건축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양을 지각적으로 활성화시켰다. 계절이나 기후의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색환경을 빚어내기도 하고 유리나 철재의 반사, 투과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빛을 조절하기도 한다.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색채는 단지 장식적 수단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설계의 개념화 작업에서 건축이 구축

되는 과정, 주변 맥락의 표현, 시(視)환경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또 이러한 표현은 다중성을 가지면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 건축에서 색채가 표현되는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고 그 건축적 의미를 분석하여 색채 표현과 관련된 건축가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990년 이후 계획되거나 지어진 건축물로 엘 크로키(El Croquis), 도무스(Domus), A+U(Architecture +Urbanism) 등의 정기 간행물에서 비중 있게 취급된 건물 중 색채를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삼고 그 방식에 있어 대표성을 갖는 건축물들이다. 최종적으로 30개의 건물과 계획안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것을 고정적이고 이동적인 시점에 의한 인간과 시간의 현상적 체험을 표현하고자 한 경우, 건축 프로그램을 외부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경우, 장소와 역사적 맥락을 표현한 경우, 색채 조절적 의미에서 사용한 경우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을 상술하고자 한다.

\* 정회원,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정회원,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석사과정 졸업, 창조건축 근무

## 2. 건축에서 색채 표현의 역사적 흐름

### 2.1. 모더니즘 시대까지의 색채표현

인류의 역사에서 건축 행위의 시작과 더불어 색채가 건축의 중요한 표현요소로 사용되었음은 자명하다. 고대인들에게 색채는 그들의 종교, 천문, 기상, 도덕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현상적이기보다는 일종의 주술의 대상이었다. 그리스 시대에 접어들어 비로소 색채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전개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sup>1)</sup>, 데모크리토스<sup>2)</sup>, 플라톤<sup>3)</sup>, 플로티누스<sup>4)</sup> 등이 색채의 상징적, 관념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표명한다. 이들의 생각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계승되어 완전성, 비례와 조화, 화려한 색채라는 중세의 미의식으로 정리된다.<sup>5)</sup>

르네상스 이전까지의 색채는 주로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비로소 색채를 적극적인 미적 표현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알베르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색채 연구는 중세의 상징적인 색채 언어를 거부하고 개인적 해석을 하게 되며 물리적인 시각을 도입한다. 뉴턴에서 비롯하여 토머스 영과 헬름홀츠에 이어진 과학적인 색채 연구가 그 뒤를 잇는다.

이 시기에 미적 대상으로서의 색채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이가 칸트(Kant)이다. 그는 『판단력비판』(1790)에서 색채는 형태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색채에 의존하는 예술은 진정한 미를 가지지 못한 것이라며 색채를 폄하했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괴테의 『색채 이론(Theory of Colors)』(1801-1810)으로 그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색채를 연구하고자 했으며 칸트가 규정한 색채의 한계로부터 색채를 해방시키고자 했다.<sup>6)</sup> 그의 이론은 베토벤, 터너에서 헤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감을 부여했다.

괴테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적 색채 연구의 뒤를 이어 낭만주의 성향이 뚜렷한 19세기에 히토르프(Hittorff) 등의 다채장식론<sup>7)</sup>이 등장하면서 색채는 건축의 장식적 표현에 대한 강력한 매개체로

인식되고 연구되었으나, 여전히 절충주의적인 조형원리를 보여주며 색채를 장식적 수단으로만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sup>8)</sup>

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어 데 스틸(De Stijl)의 신조형운동이 새로운 색채조형질서를 주창했으며, 러시아 구성주의가 빛으로서 색채를 인식하면서 색채를 공간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우하우스의 '무장식적' 형태가 근대조형운동의 기본이념으로 정착되면서 재료 본연의 비장식적 색채를 제외한 일체의 부가적인 색채가 배제되었다. 르 코르뷔제가 색채의 지각 심리를 통한 공간의 표현을 보여주었기는 했으나 그 영향이 모더니즘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따라서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색채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며 건축색채에 대한 연구 역시 본격화되지 못했다.

### 2.2. 모더니즘 이후의 색채표현

#### (1) 역사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색채 표현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영웅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보다 현실주의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건축에 전통이 다시 도입되기 시작했고, 근대 건축가에게는 금기되어 왔던 역사와 역사적 양식도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장식은 더 이상 죄악시 되지 않았으며, 건축 의미의 매개체로서의 벽의 중요성이 다시 복원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건축은 근대건축보다 더 회화적인 특성을 갖는다. 대개 역사적 인유를 채용하고 그들의 맥락에 관심을 보이며, 과장된 스케일의 장식을 강조한다.<sup>9)</sup> 또한 원, 정방형, 삼각형 등의 순수 기하형태가 자주 사용한다. 다양한 역사적 모티브에서 참조한 건축적 요소들은 콜라주로 조합되며 거기에 주로 파스텔 색채와 같은 팔레트적 특성<sup>10)</sup>이 부가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과거의 장식적 요소를 참조하고 장식을 적극 도입하려는 경향은 모더니즘에서 배척되었던 상징을 건축에 다시 도입시켜 건축적 형태의 구성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요구에 기인한다. 이것은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기능의 충족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전달적 상징체계라는 새로운 인식이다. 시각 환경의 다양성과 인간의 복합 감각적 환경체험을 인정하고,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레벨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자인 미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디자인 어휘를 확장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형태 언어만을 추구한 근대 건축과는 달리, 형태의 지각과 그 의미의 속성은 각자의 학습된 지각과 그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상징적 기호라는

1)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De Coloribus'에서 불, 공기, 물, 흙 등 4 요소 고유색을 원색으로, 이 요소들의 혼합에 의해 다양한 색채가 생성된다고 했으며 '시학'에서 색채를 형태에 뒤따르는 미적 대상의 요소로 간주했다.

2)데모크리토스(Democritos)는 빛의 분자 발산설을 제창하였다.

3)플라톤(Plato)은 색채 그 자체를 아름다운 기하학적 형상과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4)플로티누스(Plotinus)는 신플라톤주의자로 범미주의(panaestheticism)에 입각하여 미를 영혼의 미라고 정의하였으며 빛의 의미를 중요시했다.

5)토마스 아퀴나스는 미의 조건을 무결(integritas) 혹은 완전성(perfectio), 적절한 비례(proportio) 혹은 조화(consonantia), 그리고 명석(claritas) 즉 화려한 색채로 정의했다. 井上充未, 임영배, 역, 건축미론.

6)Riley C., Color Codes, pp.20-21.

7)그는 고대 그리스 신전을 고증하여 다채장식(polychromy)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체계화된 오더와 같은 형태 구성요소의 일부로 아카데미한 건축법칙에 포함된다고 하여 다채장식을 물체 형태의 일부로 간주했다.

8)신태양, 19세기 건축이론에 있어서의 다채장식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 2, pp.81-90.

9)Robert A.M. Ster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역사적 인유(Historical Allusion), 맥락성(Contextualism), 장식성(Ornamentation)으로 기술하고 있다. Stern, R., "New Direction in American Architecture" in Nesbitt, K.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p.132.

10)Riley는 색채를 테이블적 특성과 팔레트적 특성, 스펙트럼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Riley, op.cit.

인식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징적 기호로서의 형태에 색채 요소는 대중들에게 이해되고 풍부한 의미를 갖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모더니즘 시대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제한된 색채와 달리 감성적, 주관적인 색채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로버트 벤추리, 찰스 무어, 로버트 스톤 등이 중심이 되는 '회색파(Grey School)'는 백색 외관이나 재료 그대로의 색을 고수했던 모더니즘 혹은 '백색파(White School)'에 대비되게 파스텔 톤이나 원색을 건축의 외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색채는 고전적 요소에서 찾은 역사주의에 대한 반영과 감성적이고 대중적인 요구에 대한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로버트 벤추리는 길드 하우스(Guild House, 1963)에서 일상적인 붉은 벽돌을 주로 사용하여 주변 건물을 받아들이고, 기단과 주두 부분에 흰색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적 구성원리를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알렌 아트 뮤지엄(Allen Art Museum, 1977) 증축계획에서는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핑크색 화강암과 장미색 사암판으로 된 장기관 모양의 '장식된 창고(decorated shed)'으로 처리하여 의외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역사적인 차이를 보여주며, 공공건축이 갖는 상징성을 무시하며 경제적인 창고(shed)가 적용된 값싼 기호로 환원된 것으로, 그가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에서 언급했던 근대 건축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건축의 통사론에서 탈피하여 의미론에 관심을 두면서 '백색파'에서 '회색파' 진영으로 전회하였다. 그는 르 꼬르뷔제의 초기 작품과 후앙 그리의 입체파 어휘에 국한된 기능적, 자연발생적 은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그의 작품에 전통적 요소와 지역에서 참조한 요소를 결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풍부한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공간을 지배하는 벽 표면에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색채이기 때문에, 재료의 진실한 표현보다는 색의 은유에 관심을 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포틀랜드 빌딩(Portland Building, 1982)에서 보듯 그는 색의 은유를 통해 풍부한 건축의 풍부한 의미 생성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건축에서 색채의 위상을 되찾게 하였다.

## (2) 해체주의 건축에서 색채 표현

초기 포스트모던 건축이 개념을 역사적 절충주의라는 하나의 양식으로 규정해 버렸다면 해체주의 건축은 보다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건축에서 생각하기(thinking)와 재사고(rethinking)를 통해 건축 이론과 실제의 목적론적 관계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테리다는 그의 책 『그림에서의 진리(The Truth in Painting)』(1978)에서 플라톤, 칸트, 헤겔, 하이데거 등의 그림과 그 감상에 대한 사유를 고찰하면서 색채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형태, 선, 디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칸트 류(類)의 가치부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색채의 이차적이고 '물질적'이며 '감각

적'인 성질에 대하여 색채의 복권을 주장했다.<sup>11)</sup> 테리다는 칸트에게서 빌어온 파레르곤(parergon) 개념으로 색채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색채가 작품, 즉 에르곤(ergon)에 부수된 개념이었다면 새롭게 그에 의해 규정된 파레르곤은 더 이상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에르곤과 동등한 위치를 갖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해체주의 건축에서는 색채를 적극적인 표현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가 많이 등장한다.

비엔나에 있는 콤파 힘멜블라우의 지붕 개조안(1984-89). 바일암 라인에 있는 자하 하디드의 비트라스방서 등은 관습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건축의 표피를 잡아당기고, 표면을 변환시키고 회전시켜 건축 형태 자체의 순수성을 추구하는데, 단편화된 면과 볼륨에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sup>12)</sup> 피터 아이젠만의 프랑크푸르트 생물학 센터에서는 DNA 구조를 건축적 형태로 치환하는데, DNA가 단백질질을 합성하는 세 가지 프로세스인 복제, 전사, 전환의 행위를 건축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각 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기하학 도형들을 반복시키고, 각 매스의 네 가지 색채의 농도를 다양화시켜 표현하고 있다.<sup>13)</sup> 또한 콜럼버스 컨벤션 센터(Columbus Convention Center, 1993)에서는 파스텔 톤의 주황계열과 청회색 계열의 색채를 교대로 사용하여 서로간의 형태가 겹치거나 중첩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청회색은 센터 주변의 도시색채로서 도시와 건물을 융합시키고, 주황계열은 대조적인 색채로 센터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이즈미 산교(Koizumi Sangyo) 사옥에서는 요소들을 분절시켜 형태와 기능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끊고자 하며, 이를 가시화하는데 색채가 사용되었다. 조개진 틈, 기울어진 벽면의 일부에 색을 사용함으로써 그 공간은 벽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베르나르 추미는 전통적인 건축 규범에서 탈피하여 건축을 그 한계 밖으로 밀어내고자 분리, 변위, 전위, 탈중심 등의 해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라 빌레트 공원에서 폴리(folie)는 우연적인 요소이자 무기능 공간으로 건축을 해체시키는 요소로서, 여기에 사용된 붉은 색은 해체된 요소들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다. 해체주의 건축가들에게 색채는 고전적인 개념의 해체적 표현으로 파편화된 형태를 강조하는 수단으로서, 강렬한 색채의 사용은 이질성, 의외성을 갖게 하여 새로운 공간의 의미를 탄생시켰다.

11)Riley, op.cit., p.65.

12)다이앤 기라도, 최왕돈 역,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건축, pp.38-39.

13)기본적인 최초의 도형은 가장 밝은 색조로, 복제에 의해 생성된 것들은 가장 어두운 색조로, 그리고 전사에 의해 생성된 것들은 중간 색조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생물학과 건축 분야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각 요소를 각각 코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3. 현대건축에서 색채의 사용

#### 3.1. 현대건축의 색채 표현 경향

현대사회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건축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은 디지털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과 분야의 정보는 공유되고 경계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인터넷이 가지는 구조 체계는 사회 구성체계와 철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디지털을 통한 미디어의 발전과 다중적인 정보의 공유를 통한 경계의 소멸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는 비고정적이고 현상적인 색채와 빛의 특징을 통해 효과적으로 건축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형태가 갖는 물성이 부재하여 그에 대한 부차적인 요소로만 사용되었던 색채가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건축 재료와 조명 기술의 발달, 건축 구조의 발달은 색채의 건축적 적용을 한결 용이하게 하였다.

건축색채의 표현은 표면색으로서 색채 효과를 나타내는 재료 고유색의 사용이나, 페인트의 사용, 색채 유리의 사용과 같은 고정적인 표현 형식을 벗어나, 점차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디지털 색채로 구성된 미디어를 적용한 외피의 표현, 고정적 형태의 틀을 탈피한 조명 효과를 이용한 비물질적인 표현, 색채 표현과 재료의 조각이 용이한 합성재료의 사용, 또는 인공자연의 구성을 통한 랜드스케이프적 표현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색채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대의 건축이 갖는 색채 표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현대건축의 색채의 표현 특성을 현상적, 프로그램적, 맥락적, 조절적 의미로 분류하고자 한다.

건축에서 색채는 심미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설계의 개념화 작업에서부터 건축이 구축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밀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사람의 이동이나 시간의 변화와 같은 현상을 가시화하는 작업, 혹은 프로그램의 분류, 통합의 프로세스 전반에 반영되고 또한 프로그램을 인식하기 쉽도록 표현기도 한다. 역사성, 장소성에 관한 맥락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자기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고 색채를 통해 대상의 인지를 돕고 심리적으로 조절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등의 의도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형태로 고정된 색면을 초월하여 독자적인 의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색채 표현이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3.2. 현대건축의 색채 표현의 의미

##### (1) 현상적 표현

건축공간에서 현상은 물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간과 시

간 속에서 변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체험의 대상이 된다.<sup>14)</sup> 즉 현상이란 체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건축에서의 현상적 표현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양을 지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은 우리의 일상적인 현상을 격양시키고 변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떤 형태의 예술보다도 우리의 감각적 즉시성(卽時性)을 포함한다. 시간의 흐름, 빛과 그림자, 투명성, 텍스처, 재료, 디테일 모두 건축의 완전한 체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이 일체의 물리학적 가설을 배제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색채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자 체계화한 현상학적 색채론과 일맥상통한다.<sup>15)</sup> 그가 색채를 논하면서 우리의 시각 경험에 속하는 시야에서의 한 점을 예로 들고 색채를 둘러싸고 있는 색채공간이 시각 공간의 경험과 떼어서 이해될 수 없다고 한 사실에서 그의 색채는 물리적인 의미의 색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공간, 시간, 그리고 색채는 대상의 형식이다"라고 말하는데, 대상 형식이라 함은 직접 경험에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 ① 이동적 시점에 의한 색채 현상

공간의 이동을 체험하면서 나타나는 색채 현상은 두개 이상의 색-빛의 배치나 중첩을 통해 드러난다. 반투과성을 갖는 이중표피를 사용하거나,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조형을 보여주는 양면을 갖는 표피,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색면을 가지는 차양막을 설치하거나 니리치+니리치(Njiric+Njiric)의 보맥스 하이퍼마켓(Baumaxx Hypermarket)처럼 요철면에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개 이상의 색의 배치나 중첩은 야간에 빛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현상이 특히 잘 드러나고 있다. 광원에 의한 발광색은 공간에 색을 담아내고, 때때로 반투과적인 표피에 의해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냄으로써 표현되기도 하고, 물체의 표면에 닿은 빛의 무한한 산란을 통해 시각의 이동에 따라 무한히 다른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주로 발광체에 의한 빛의 조형을 반투과적인 대상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색채의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현상적 표현을 보여주게 된다.

##### ② 고정적 시점에 의한 색채 현상


대상을 바라보는 위치가 일정한 경우에도 대상 자체가 변하여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태양광, 조명 등 빛을 조절함으로써 그 빛의 강약에 따라 달라지는 색채의 지각적 특성을 이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양을

14)철학적 의미에서 현상이라는 개념은 플라톤 이후 후설,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철학적 의미로서의 현상이란 시공에 제약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 즉 이데아가 시공계에서 재현된 모습을 말하며, 현상학에서 현상이라 함은 칸트에 의해서 도입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15)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Remarks. 1975. p.51.

지각적으로 활성화시키며, 광택이 나거나 혹은 광택이 제거된 표면 반사도의 변화, 불투명과 투명한 색의 차이, 그리고 반사된, 혹은 투사된 색의 독특한 특성은 현상학적 색채 경험의 다양한 변화를 제공한다. 색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힘은 부가적으로 변하는 성질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빛에 따라 기능하기도 한다.<sup>16)</sup> 또 다른 경우는 여러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차양막이나, 내부의 가벽을 이동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연물을 써서 외피를 만들어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에 따라 대상의 색채와 이미지를 달리 보이는 것이다. 색에 의한 현상의 지각은 빛의 파장에 대한 수학적 원리와 시각의 물리적인 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빛을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의 수학적 엄밀함은 색의 지각 경험과는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건축에서의 색채에 의한 현상적 표현은 사람의 이동적 체험에 따른 변화와, 빛의 조절이나 색면의 조절, 자연 현상의 변화와 같은 고정적 시점에 따른 현상의 변화가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대상에서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표 1> 현상적 표현으로서의 건축

의 미	사례			표현방법
	건축가	작품		
0 동적 체험에 의한 색채현상	Steven Holl	Sarphatistraat Offices		이중표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무아레 패턴을 창출/ 밝과 낮의 조형 변화
	Njiric+ Njiric	Baumaxx Hypermarket		움 아트적 효과/ 밤낮의 조형 변화
	Njiric+ Njiric	Lago Verita Casino		서로 다른 양면을 갖는 차양막 설치
	Steven Holl	Simmons Hall		편칭된 창틀 부분을 채색함으로써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임
고정적 시점에 의한 색채현상	Sauerbr-uch & Hutton	GSW Building		건물 사용자가 차양막을 조절함에 따라 상이하게 보임
	Sauerbr-uch & Hutton	BMW Event & Delivery Center		색채를 갖는 스크린의 이동
	Herzog & de Meuron	Goetz Gallery		이질적 재료를 동일한 색채로 표현하였으나 기후나 시간에 따라 이질성을 노출
	F.O.A.	BBC White City		음악의 리듬과 볼륨에 따라 변화하는 음향 스펙트럼을 이용, 디지털화된 조형표현
	Jean Nouvel	Guggenheim Tokyo		자연을 외피로 하여 사계절의 조형이 변화
	Eduardo Arroyo	National Trust Lodge		루버의 단면과 정면의 색을 차별화/ 개폐 상태에 따른 다양한 입면 변화

16)한태희, 스티븐 홀 건축에 구현된 '현상의 지각적 활성화' 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0년 10월 p.504.

(2) 프로그램적 표현

현대사회는 정보 네트워크가 사회 전반의 구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축의 프로그램도 이에 영향을 받아 복잡적이며 다양하고 변화 가능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의 고정적인 프로그램 조직 방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혼재되고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방식에서는 색채가 요소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연결하는 기능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설계 과정에서 확장된 경우

색채가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관여하여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통합하는 구체적인 개념 전개 과정에 표현된다. 실제적인 기능의 분류는 물론, 철학적 요소나 다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건축으로 구체화하는데 사용된다. 사례에서 보듯 바람이나 음악을 표면화시키는 요소로 색채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표면화된 색채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계획되고 다듬어져 실제 건축에 반영되고 있다.

② 색채로 공간의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경우

색채가 계획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질적이고 혼재된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차이와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유형이다. 이것은 현대건축의 프로그램 구조가 갖고 있는 산발적이고 복합적인 조직에서 공간의 성격을 보여주고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의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어 방향 설정을 돕고, 연결에 따라 리듬감을 부여한다. 공간의 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프로그램적 표현으로서의 건축










의 미	사례			표현방법
	건축가	작품		
설계 과정에서 확장된 경우	MVRDV	SILODAM		입면과 내부의 프로그램 분류를 색채로 가시화
	Eduardo Arroyo	National Trust Lodge		프로그램의 분류와 사용속도에 대한 데이터를 루버의 색으로 표현
	Njiric + Njiric	Lago Verita Casino		4개의 프로그램에 맞춰 각 매스를 4가지 색채로 계획
공간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경우	Herzog & de Meuron	Laban Dance Center		공간의 성격을 규정, 리듬과 방향 설정
	Mansilla + Tunon	Civic Center		동일한 형태를 가지나 상이한 프로그램을 갖는 4개의 매스를 다른 색채로 표현
	Steven Holl	Chapel of St. Ignatius		다양한 프로그램의 암시

(3) 맥락적 표현

① 장소성의 영향

대부분의 건축에서 색채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주변 맥락, 즉 장소성과 역사성에 대한 고려이다. 주변 맥락에 대한 고려야말로 색채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며, 건축 색채를 계획할 때 필연적으로 많은 제약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건축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이 놓일 대지 위의 주변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결코 잘된 건축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 건물의 색채를 추종하는 소극적인 장소성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지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도시의 색채를 색채 팔레트로 만들고 재구성을 통해 입면을 구성하는 경우, 주변 건물들과는 다른 재료나 표현 방식을 통해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면서도 주변과 어울리도록 색채가 표현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자우어브루흐 & 허튼(Sauerbruch & Hutton)의 GSW 빌딩은 베를린시 주변을 색채 팔레트로 만들고 그것들을 재구성하여 입면 차양막의 색채 구성에 적용하였으며, 그들 스스로가 말하듯 베를린시가 아니면 계획될 수 없는 색채 구성을 가지고 있다.

<표 3> 맥락적 표현으로서의 건축

의미	사례			표현방법
	건축가	작품	작품	
장소성의 영향	Sauerbruch & Hutton	GSW Building		베를린시 주변 색채 팔레트를 바탕으로 채색된 차양막으로 표현
	Erick van egeraat	Crawford Art Gallery		주변 건물과의 맥락성
	Erick van egeraat	Apartments Mauritskad		주변 건물과의 맥락성
	Jean Nouvel	Carnegie Science Center		철의 도시 피츠버그의 영향을 받아 철재 색상으로 외관 구성
	Jean Nouvel	Conference & Leisure Center		항구라는 가독성의 유지를 위해 항구가 갖는 컨테이너 박스의 색채를 이용
역사성의 영향	Mansilla + Tunon	Civic Center		도시 풍경을 건축으로 끌어들이며 도시의 박동에 따라 색채가 변화하도록 계획
	Jean Nouvel	Omnilife Offices Complex		루이스 바라간의 사용한 전통적인 멕시코의 색채를 사용
	Erick van egeraat	Crawford Art Gallery		갤러리가 갖고 있던 본래의 색채를 적용하여 역사적 컬러 창출
	Erick van egeraat	Yakimanka		러시아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색채 사용

② 역사성의 영향

맥락을 반영하는 방법은 그뿐만 아니라 그 대지가 이전부터 갖고 있는 역사성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그 지역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품고 있는 정서의 총체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장 누벨의 Omnilife Offices Complex 계획안은 멕시코인의 정서를 잘 반영했던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의 색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바라간의 색채는 멕시코의 역사성을 환기시키며 정서적 친밀감을 부여하는 색채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구성주의에서 모티브를 발견한 Yakimanka도 좋은 예가 된다.

(4) 조절적 표현

일반적으로 색채 조절은 심리학, 생리학, 색채학, 조명학, 미학 등에 근거를 두고 색을 과학적으로 선택하여 색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미적 효과나 선전효과를 겨냥하여 감각적으로 배색하는 장식과는 뜻이 다르다.<sup>17)</sup> 여기에서는 건물의 존재를 감추고자 하는 은폐 기능, 색 감정에 의한 심리적 기능, 또는 색채의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한 물리적 기능과 같은 일차적인 색채 조절에 의한 기능 뿐 만 아니라, 색채의 사용으로 건물의 성격을 인지시키는 경우와, 색채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건물을 새롭게 포장하는 경우, 감각적인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선전 효과를 갖게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① 인지, 식별을 위한 표현

건축물을 색채를 통해 인지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으로, 건물의 기능이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들어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소방서의 경우 외관을 빨강색을 써서 표현한다거나, 쇼핑센터에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색을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우어브루흐 & 허튼의 소방/경찰서(Fire and Police Station)은 경찰서와 소방서로서 소방차의 빨강색, 안전을 의미하는 녹색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은폐를 위한 표현

은폐기능은 주로 군사시설이나 혐오시설의 경우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을 사용하거나, 주변과 비슷한 색을 써서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단순 은폐기능을 넘어서 혐오시설을 새롭게 포장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한 사례들이 있다. Cero9의 Magic Mountain의 경우 낡은 공장의 외피에 장미를 심어 공간이 갖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③ 심리적 조절을 위한 표현

색채를 통한 심리적인 작용은 통상적인 색채 감정을 고려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배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17)문은배,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 국제, 2002, p.143.

색-빛의 성질을 이용한 적절한 사용으로 건물의 중량감을 없애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장 누벨의 아그바 타워(Agbar Tower)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표 4> 조절적 표현으로서의 건축

의미	사례		표현방법
	건축가	작품	
인지, 식별	Sauerbr-uch & Hutton	Fire and Police Station 	색채를 통해 건물의 용도를 지칭, 식별 가능하게 표현
	Jean Nouvel	Brembo Technology Center 	강렬한 붉은색으로 Brembo 의 이미지를 표현
은폐	Cerc9	Magic Mountain 	공장이 갖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환경 창출
심리적 조절	Jean Nouvel	Agbar Tower 	이중표피와 조명을 사용하여 건물을 비물질적으로 표현/ 매스의 중량감 제거

### 3.3. 색채표현의 다중적 의미

현대건축에서 색채의 건축적 의미는 그 표현기법에 차이가 있으나, 디자인 과정에서의 의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현상적 표현, 프로그램적 표현, 맥락적 표현, 조절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서 나타나는 색채는 그 의미가 단일한 의미만을 갖고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경우 <표 5>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현대건축에서 색채표현의 다중적 의미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현상인 멀티코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벤추리의 표현을 빌자면 모더니즘의 양자택일적 디자인(either-or)이 아니라 다의적, 포괄적 디자인(both-and)으로도 볼 수 있다.<sup>18)</sup>

건축에서 다른 다양한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색채는 의미를 표현하고, 암시하고, 은유를 불러일으키며 내러티브를 보여주기도 한다. 건축 색채의 상징적 가능성은 작품을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우화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그러한 차원에서 연상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한다.<sup>19)</sup> 인간 심리의 기저에 근거한 색채의 의미나 색채의 상징 언어가 굳어져서 특정 문화 내의 모든 이가 공유하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해석의 편차가 크지 않다. 단일 의미가 아닌, 중층적인 색채의 의미는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역동적인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수용되고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18)Venturi, R.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1966. p.23.

19)S. Unwin, Analysing Architecture, 1997. p.55.

<표 5> 색채표현의 다중적 의미

작품 / 건축가	현상적 표현	프로그램적 표현	맥락적 표현	조절적 표현
Sarphatistraat Offices / Steven Holl	○			
Simmons Hall / Steven Holl	○			
Baumaxx Hypermarket / Njiric +Njiric	○			○
Goetz Gallery / Herzog & de Meuron	○			○
National Tourist Lodge / E. Arroyo	○	○		○
Guggenheim Tokyo / Jean Nouvel	○		○	○
GSW Building / Sauerbruch & Hutton	○		○	
BMW Event & D. Center / S & H	○	○		○
BBC White City / FOA	○			
Lasesarre Football Sta. / E. Arroyo	○			
SILODAM / MVRDV		○		
Laban Dance Center / H. & de Meuron	○	○		
Civic Center / Mansilla + Tutton		○		
Chapel of S. Ignatius / Steven Holl	○	○		
Crawford Art Gallery / Erick van egeraat			○	○
Apartment Mauritskad / E. van egeraat	○		○	
Conference & L. Center / Jean Nouvel		○	○	
Carnegie Science Center / Jean Nouvel	○		○	
Ornilife Offices Complex / Jean Nouvel	○		○	
Photonics Center / Sauerbruch & Hutton	○			
Pharmacological Research Lab. / S & H	○			
Experimental Factory / S & H				○
Lucerne Hotel / Jean Nouvel	○		○	
MUSAC / Mansilla + Tutton				
ES Hotel / King & Roselli	○	○		
Magic Mountain / Cerc9	○			○
Agbar Tower / Jean Nouvel	○			○
Brembo Tech. Center / Jean Nouvel				○
Fire & Police Station / S & H		○		○
Lago Verta Casino / Njiric +Njiric	○	○		○

## 4. 결론

현대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전혀 새로운 가상공간을 창조하였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과 분야의 정보는 공유되고 경계가 없어지게 되었다. 인터넷이 가지는 구조 체계는 사회 구성 체계와 철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다중적인 정보의 공유를 통한 경계의 소멸과 같은 사회적인 변화가 건축에 적용되어 비고정적이고 현상적인 색채와 빛의 특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물성이 부재함으로써 형태에 대하여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던 색채가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건축 재료와 조명 기술의 발달, 건축 구조의 발달은 색채의 다양한 건축적 적용을 용이하게 만

들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건축에서 색채는 현상적 표현, 프로그램적 표현, 맥락적 표현, 조절적 표현 등의 의미를 가지며 그 표현 양태 또한 다중적이다. 인간이 대상을 인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색채에 대한 고려는 디자인 과정에서 더 이상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 다양한 표현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의 진행에서 색채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Architectural Record, June 2002.
2. Architectural Review, 1274, April 2003.
3. Domus 857 March 2003.
4. Domus 858 April 2003.
5. Domus 860 June 2003.
6. Domus 864 November 2003.
7. Domus 866 January 2004.
8. Domus 871 June 2004.
9. Domus 872 July & August 2004.
10. El Croquis 53 + 79 Rem Koolhaas OMA, 1987-1998.
11. El Croquis 86 MVRDV, 1991-2002.
12. El Croquis 93 Steven Holl., 1986-2003.
13. El Croquis 109, 110 Herzog + de Meuron, 1998-2002.
14. El Croquis 112, 113 Jean Nouvel, 1994-2002.
15. El Croquis 114(1) Sauerbruch & Hutton, 1997-2003.
16. El Croquis 114(2) Njiric + Njiric. 1997-2003.
17. El Croquis 115/116(1) F.O.A., 1996-2003.
18. Riley C., Color Codes, University of New England Press, 1995.
19. Stern, R., "New Direction in American Architecture" in K. Nesbitt,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20. Unwin R., Analysing Architecture, Routledge, 1997.
21. Venturi, R.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Museum of Modern Art, 1966.
22.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Remarks. Rhees R., and Hargreaves R.(eds.). University of Chicago, 1975.
23. 다이엔 기라도, 최왕돈 역,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건축, 시공사, 2002.
24. 문은배,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 국제, 2002.
25. 신태양, 19세기 건축이론에 있어서의 다채장식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 2.
26. 이종무, 해체주의 건축의 형성배경과 성격에 관한 연구-디자인 개념과 형태표현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7. 한태희, 스티븐 홀 건축에 구현된 '현상의 지각적 활성화' 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0년 10월.
28. 황연숙, 색채이론을 바탕으로 본 근, 현대건축의 경향에 관한 분석 - 뉴턴, 피테, 비트겐슈타인의 색채이론을 중심으로 본 러시아 구성주의, 추상아방가르드, 해체주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접수 : 2006. 2. 28>